

경제

# 총장로는 지금 ‘커피 전쟁 중’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싼 광주 시 동구 총장로 1가 일대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앞두고 자리 선점효과와 함께 구도심에서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총장로 1가 일대는 카페문화의 최전선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총장로 1가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입점이 줄짓고 있다. 총장로 인근에 자리 잡은 커피숍의 간판들.

등 문화공간이 젊은층을 유도하는 데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인구밀집 효과’가 확실해 업체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지역의 높은 임대료다. ‘드롭탑’이 입점하는 자리는 한 일식집이 최근까지 15년 이상 영업을 해왔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부담이 높아 ‘목 좋은 자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 대형 프랜차이즈 우후죽순 ‘한집 건너 커피숍’

## 젊은층 유동인구 많고 문화전당 기대효과까지

남짓한 거리에 총장서림점이 있는 데다 총장지구대 앞쪽에 총장로점이 있어 총장로에서만 총 3곳의 매장이 영업하게 된다.

3곳의 커피숍이 문을 열게 되면 총장로 1가 부근은 ‘한집 건너 한집이 커피숍’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1가 일대는 현재 ‘엔제리나스’와 ‘한스앤빈’, ‘할리스’, ‘탑엔탈스’, ‘카페베네’ 등의 프랜차이즈 커피

숍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이 지역에 앞다퉈 커피숍이 문을 여는 이유는 발전 가능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기 때문. 점심기와 비교해 쇠락한 구도심이지만 여전히 유동인구가 많고, 같은 총장로 상권 안에서도 의류상가가 밀집돼 있는 1가 인근과 황금동은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쿼터스호텔광주(아시아문화마루)

‘드롭탑’ 마케팅 관계자는 “광주 최초 입점을 위해 상권을 분석하니 총장로 상권이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도 향후 영업에서 배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커피숍이 몰리는 경향에 대해 일부 커피숍 업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커피숍 수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제살짜 먹기’가 되지 않겠냐”며 “점포당 창업비용이 최소 3억원 이상이 소요돼 몇몇 후발주자들은 당분간 흑자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택배업체 “바쁘다 바빠”

## 추석 한 달 앞 ... 차량·인력 총동원 비상체제

최대 명절인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택배업체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 업체는 내달 5~7일 택배 물량이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용 차량과 인력을 총동원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지엠은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을 추석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선물 배송을 시작한다. 현대로지엠은 이 기간 2500여대의 택배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터미널 분류 인력과 고객만족실 상담원을 40% 증원할 예정이다. 또 본사 직원 700여 명도 현장 지원에 나선 계획이다. CJ GLS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을 추석 수송기 특별 운

영기간으로 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추석 물량이 약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CJ GLS는 “여름 추석”이 예상되는 만큼 터미널에 비치된 냉장·냉동고를 활용해 정육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신선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한통운은 올해는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보다는 최근 가격이 떨어진 한우 등 정육류나 공산품이 추석 선물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시설의 점검에 들어갔다. 대한통운은 대전 문평동 허브터미널과 서울 가산동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주요 택배 시설과 사업소의 냉동·냉장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냉장이 필요한 화물은 최우선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중소형 아파트가 대세

## 분양물량 80% 육박

## 2003년 이후 최고치

올해 분양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비중이 78.48%까지 치솟아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포털 데이터아파트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전용면적별로 집계한 결과 중소형 공급비율은 2003년 73.78%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처럼 올해 80%에 육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형 공급비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49.58%까지 떨어졌

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2009년부터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것도 중소형 확대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중소형 물량이 총 1만5146가구 중 1만1002가구(72.6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1만647가구, 71.91%)와 경상남도(1만342가구, 93%) 등도 중소형 공급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6117가구 중 3793가구(62%)가, 인천은 1591가구 중 873가구(54.87%)가 각각 중소형으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연합뉴스



## 계란값 폭등

돼지고기, 채소에 이어 계란값까지 급등하며 시중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이 종류에 따라 최고 35.8% 가량 상승했다. 10일 광주 서구 이마트의 계란 매장에서 직원이 계란을 정리하고 있다. <이마트 광천점 제공>

# “계란, 너마저...”

## 8월들어 40% 급등 물가 상승 부채질

돼지고기, 채소에 이어 계란값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10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개당 122원이던 계란(특란) 가격은 현재 169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5%나 올랐다.

일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소매 가격(30구, 특란)도 지난해 8월 4380원에서 5950원으로 35.8% 가량 상승했다.

소매가격을 계당으로 환산하면 약

198원이다.

이처럼 계란값이 오른 것은 최근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는 악천후로 인해 산란계(産卵雞·산란기에 있는 닭)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란의 껍질이 얇아져 계란의 세균 감염, 유통기한 단축, 이동시 파손 등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AD)의 여파로 올해 초 15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매몰 처분되면서 계란의 생산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가격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란계를 생산하는 산란계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산란계가 될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는 AI의 여파로 인해 개체수가 작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이로 인해 병아리를 적기에 양계장에 입식하지 못한 것이 계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주요 대형마트들은 최근 도매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11~12일계 계란 소매가격을 10% 가량 추가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7월 취업자 늘었다

## 광주·전남 67만8000명 ... 지난해보다 0.7% ↑

광주·전남 지역의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2011년 7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중 광주의 취업자는 6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7%) 늘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000명)과 농림어업(6000명)이 각각 증가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00명), 건설업(4000명), 제조업(3000명) 등은 줄었다.

전남의 7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8%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1000명(3.9%) 줄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활동인구는 4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2000명(2.6%) 증가했다.

전남지역의 취업자는 9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5000명(2.9%)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000명), 건설업(4000명), 농림어업(2000명), 제조업(1000명) 등이 증가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1000명)은 감소했다.

전남의 7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8%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1000명(3.9%) 줄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06.24 (+4.89)
▲ 코스닥지수	453.55 (+20.67)
▲ 금리 (국고채 3년)	3.45% (-0.12)
▲ 원·달러 환율	1080.00원 (-8.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b>옛날세상</b> 궁동 63-2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앞) 행이리,골동품,수석,목표도자기,서물맞고대사 황토방,한옥,고전인테리어전문 <b>☎010-5062-2654</b>	<b>엄마분식</b> 두암동 마미분APT입구 새마을금고 맞은편 식사류및분식류,추어탕,삼계탕,콩국수,비빔국수, 포장예약전문 <b>대표 조진희</b> <b>☎062-251-7785</b>	<b>빛고을익스프레스</b> 북구 신안동 대원시장 직원수시모집, 시디리차, 스카이 보우 24시간 상담가능 <b>대표 이광용</b> <b>☎062-525-2442</b>	<b>진주인력대기소</b> 동구 계림동 464-6 진주거리 사거리 일용직 수시모집, 전기, 철거, 목수, 소방, 통신 <b>☎062-401-3070</b>	<b>정원일식</b> 동구 금동구, 시청사거리 병무청 쪽 <b>대표 노동찬</b> <b>☎062-512-8764</b>	<b>기담철학원</b> 북구 두암동 594-23 화정사우나 옆 사주음원관측 학습교과빠르게 가르쳐 드립니다. <b>기담 배완식</b> <b>☎062-263-0208</b>	<b>엔젤인 마트</b> 광산구 신창동 신창중교 앞 각종 문구류 전문 판매	<b>매산건축철거전문</b> 북구 신안동 크리온제과 옆 상가, 건물, 집수리, 폐기물처리, 진토, 모래, 지갈 25톤덤프, 방수 주택철거 전문 <b>☎062-528-7008</b>
<b>119미꾸&amp;오리</b> 서구 쌍촌동 901-1 상무푸르지오@후문앞 주어탕과오리탕, 넓은 주차장, 200석 및 단체를 완비 <b>대표 최용</b> <b>☎062-374-4119</b>	<b>하프&amp;치킨</b> 용봉동 전대가속사 부근 후라이드+양념치킨+콜라+쿠폰=15,900원 순살두마리 피망치킨 주문시 1,000원 추가 <b>☎062-525-0774</b>	<b>무등산업</b> 서구 화정역, 쌍촌역 중간 잿등 식당주방필수 이통사, 수생식 에어컨전문 <b>☎062-371-7095</b>	<b>민음고기나라</b> 두암동 574-6 하이마트 옆 <b>생고기 전문점</b> <b>☎062-262-9226</b>	<b>금산건설팅개발</b> 중흥동 안보화관사거리 전대청화관 맞은편 집수리,인테리어,건물신축,건물철거 리모델링 전문업체 <b>☎010-2677-6700</b>	<b>호남특수무늬목</b> 북구 중흥동 무늬목 필름,알판,MDF,합판,문실,방부목 인테리어자재, 마루, 테코타일 취급업체 <b>☎062-512-8764</b>	<b>(주)금산건설개발</b> 중흥동 안보화관사거리 전대청화관맞은편 토지, 매매, 경공매, 상가 APT, 법률, 세무, 금융상담 <b>☎070-4120-9457</b>	
<b>백호유통</b> 북구 각화동 무등파크 정문옆 롯데, 현대, 동아오츠카, 각종 음료 및 디저트 도매전문점 <b>☎062-251-3948</b>	<b>유성환경기술</b> 매월동 공구상가 5동 201호 상하수도 설비 기술자 구인/영점합자대 금여 상담 후 결정 <b>☎062-603-1819</b>	<b>박기네들개량팔이랑족색생면칼국수</b> 서구화정4동사무소 옆 들깨랑, 비지라칼국수, 팔죽메생이, 해물전 <b>대표 박종수</b> <b>☎062-374-5552</b>	<b>성인소파</b> 북구 두암동 청야맨션 정문 옆 가정용, 영업용, 소파,식탁의자, 천같이 수리 및 주문제작, 도·소매전문 <b>☎062-268-0974</b>	<b>Rinnai(린나이무등상사)</b> 동구 학동 시외사정류장 맞은편 후천사마 일구 옆 가스, 기름보일러, 손건문수기, 전기문수기, 분배기교체 보일러배관청소, 업소용기구, 도·소매 전문 <b>대표 정승채</b> <b>☎062-223-3652</b>	<b>진영소주방</b> 북구 오치동 상설시장 apt 입구 흥어찜, 각종전문점 <b>대표 추명순</b> <b>☎062-261-8652</b>	<b>화석시대고기뷔페</b> 서구 농성동 농성동 송광맨션 입구 사거리 저회업소는 순수한 국산만을 고집합니다 <b>대표 김영자</b> <b>☎062-363-7892</b>	